



풍도(馮道)의 처세

박종권 호서대 융합학부 부교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前 언론중재위원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의 1막1장. 천둥 번개와 함께 세 마녀가 등장한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언제 다시 만날지 논의한다. 전투의 승패가 판가름 나고 해가 지기 전 황야에서 맥베스를 만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는 한 목소리로 말한다. “고운 것은 더럽고, 더러운 것은 곱다(Fair is foul, foul is fair).”

이 부분은 번역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다” 혹은 “맑음은 흐림이요, 흐림은 맑음이다”로 번역하기도 한다. 노자(老子)가 도덕경에서 “아름다움은 추하다. 선한 것은 선하지 않다”고 갈파한 것과 놀라운 정도로 통한다.

야구 팬이라면 페어(Fair)와 파울(Foul)이 선 하나를 두고 인(In)과 아웃(Out), 옳음과 그름,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용어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이 어찌 같다는 말인가. 여기에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미 해답을 제시했다. 영화 제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말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던가. 광고 카피 “사랑은 변하는 거야”는 “검은 머리 파뿌리~”를 비웃는다. 기실 사랑이 변하겠나. 사람이 변하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의 됴됨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선 하루에도 열두 번씩이나 변한다고 자조하지 않던가.

주역(周易)을 단 한 자로 압축하면 변화한다는 변(變)일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만물유전설과 같은 맥락이다. 혁명이 군사쿠테타로 제자리를 찾고, 학생 의거가 혁명으로 명명된 것도 그렇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영원불변 확정성이 본디 불가능한 인간 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 성공했다고 환호작약할 것도, 실패했다고 낙담할 것도 없다. 삶은 계속되고, 오늘 실패가 내일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다. 반대로 성공으로 방약무인 겸손하지 못하면 필히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하지 않던가. 총칼로 일어난 자는 총칼에 무너지고,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고 했다. 그저 성공에 겸손하고 실패에 담대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룬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선하게 살면서 덕을 베풀면 복을 받을까. 그렇다면 왜 착하게 산 사람을 꼭 찍어 적선지인(積善之人)이 아니라 그 집안이라는 뜻의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인가. 사람들이 보건대 착하게 살았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간난고통을 겪는 일이 허다해서 그랬을까. 본인은 그렇다고 해도 후손이라도 발복의 경사를 누릴까.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던져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선열의 후손과 일제에 빌붙어 세도를 부리던 친일파 후손의 삶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열심히 일했지만 불투명한 미래에 희망을 접고 장례비용을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소외자들 건너편에 불로소득자들은 명품 사재기에 열을 올리는 기괴한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도 ‘열전’ 첫머리에 이런 회한을 풀어놓는다. “살인과 강도를 일삼은 도척은 천수를 누리고, 착하고 고결한 백이와 숙제는 굶어 죽었으니 소위 천도(天道)는 옳은기”라고 묻는다. 친구 이릉을 변호했다가 치욕스러운 궁형(宮刑)을 받은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래도 사마천은 삶이 베풀 말없는 가르침, 무언지교(無言之教)에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서백(西伯)은 간헐 몸으로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孔子)는 군왕들이 알아주지 않고 고난을 겪게 되어 춘추를 지었으며, 굴원(屈原)은 쫓겨나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左丘明)은 눈이 멀어 국어를 남겼다. 손자(孫子)는 다리를 잘리고서 병법을 논했고, 여불위(呂不韋)는 좌천돼 여씨춘추를 전했으며, 한비(韓非)는 진나라에 간혀 세난과 고분을 남겼다. 시경 300편은 대체로 현인과 성인이 발분하여 지은 것인데, 모두 마음 속에 울분이 맺혀 있지만 그것을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니간 일을 서술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한 것이다.”

그런 그가 열전에 내세운 인물들은 그 마지막이 슬프거나 안타깝다. 대부분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시대의 영웅들이다. 백이(伯夷)야 불사이군(不事二君)이란 명분으로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지만, 진시황을 도와 중국을 통일한 이사(李斯)는 창업 1등공신 아닌가. 지록위마(指鹿爲馬)로 권력을 농단하던 한날 환관에 불과한 조고(趙高)에 죽임을 당한다. 세난(說難)에서 역린(逆鱗)을 경계한 한비(韓非)는 친구 이사(李斯)에게 독살된다. 진(秦)나라에

법치의 기초를 닦았던 상앙(商鞅)은 자신이 정한 법에 따라 거열형에 처해진다. 이사-한비-상앙 모두가 법가(法家)로, 요즘으로 보면 법조 출신이란 점이 이채롭다.

뿐인가.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주역 오(吳)의 부차(夫差)에게 승리를 안겼던 오자서(伍子胥)는 말가죽에 싸여 물고기밥이 되지 않았던가.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홀로 깨끗하고, 모두 취했는데 나만 깨어 있다”고 한탄한 굴원(屈原)은 멍라수를 향한다.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관의 먼지를 털어 쓰고, 목욕한 사람은 옷의 티끌을 털어 입는다”던 그는 스스로 물고기밥이 된다. 이처럼 사기열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씨줄은 바로 권력무상이다.

가수 김세레나의 '성주풀이'는 “낙양성 십리 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로 시작한다. 실제로 중국 뤼양(洛陽)의 황하 기슭 북망산에는 줄잡아 200여 제후급 인물들이 묻혀 있다. 백제의 의자왕도 끌려와 묻혔다고 한다. 문제는 황하가 종종 범람해 지형도 크게 바뀌면서 실제로는 탁류 속으로 유실된 유해들이 많다고 한다. 봉분을 높여도 결국 어복(魚腹)에 장사를 지낸 셈이다.

당대에는 얼마나 평평거리며 살았는지 모르나 지금은 제사는 고사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스가 현세의 영광보다 후세에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길 바란 것도 바다위에 뜬 좁쌀 같은 창해일숙(滄海一粟) 인생이란 점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워보이들이 자살공격을 감행하며 “기억해 줘~”라고 외치는 장면은 좀 냉소적이고,

옳고 그름은 어렵다. 시대정신은 시대에 따라 변할까. 행복과 불행도 유리컵에 반쯤 남은 물처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겠나. 그래서 노자도 장단상교(長短相較), 길고 짧은 것은 대박야 드러난다고 했다.

그렇다. 길다는 것과 짧다는 것은 상대적이다. 젓가락을 예로 들어보자. 이쑤시개와 비교하면 길지만, 전봇대와 비교하면 짧지 않다. 이처럼 길고 짧은 것은 비교함으로써 드러난다. 원래 길거나, 본디 짧은 것은 없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덕경 양신(養身)편에서 아름답고 추함(美醜)과 선하고 악함(善惡)처럼 있고 없음(有無), 어렵고 쉬움(難易), 길고 짧음(長短), 높고 낮음(高低), 음과 소리(音聲), 앞과 뒤(前後)도 마찬가지로 동전 양면처럼 본디 한 몸이라는 통찰이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모든 사안을 있는 그대로 두고(Let it be)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가르침을 행한다는 것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은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한다. 대신은 일종의 폭기조(曝氣槽)이다. 정체태 썩은 물에 산소를 주입하는 거다. 비록 물이 뒤집어지면서 더욱 혼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산소라는 생명력을 머금게 되는 거다. 이후 침전과 약품처리를 거치면 다시 맑은 물이 되는 거다.

중국의 오대십국(五代十國)은 정치적 혼란기였다. 조금 과장하면 눈을 뜨니 정권이 바뀌어 있는 식이다. 이 시기에 풍도(馮道)라는 인물이 있다. 황소의 난으로 어지럽던 당(唐) 말기에 태어나 후



량-후당-후진-후한-후주에 이르는 5왕조의 11군주를 모셨다. 평가는 천하의 간신배에서 명재상까지 극과 극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송(宋)대의 사학자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풍도를 비난한다.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은 얼굴이 어여쁘고 바느질 솜씨가 좋아도 정숙하다 할 수 없으며, 충성스럽지 않는 신하는 재능이 많고 공적이 뛰어나도 훌륭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침에는 서로 원수였는데 저녁에 임금과 신하 사이로 변하자 표정과 말투를 바꾸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착한 일 좀 몇가지 했다고 어찌 괜찮다고 할 수 있느냐고 평가했다. 이후 풍도는 절개도 염치도 없는 인물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 또한 그때는 맞고 지금을 틀린 이야기인가. 세월이 흘러 명(明)대의 사상가 이탁오는 장서(藏書)에서 “오대십국의 혼란기에 백성들이 전란의 참화를 그나마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풍도가 백성을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도록 노력한 덕이다”고 극찬한다. 맹자가 “사직(社稷)이 중요하지 임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정치의 요체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사직’을 풀어보면 사(社)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직(稷)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즉 백성이 중요하지 임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풍도와 같은 인물을 굳이 우리 현대사에서 찾자면 고건 전 총리가 있겠다. 박정희 시대에 관료로 입신해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장관으로, 총리로, 시

장으로, 정부의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봉직했다. 이런 이력은 그가 공직자로서 유능하기도 했지만 무색무취(無色無臭)한 정치성향 덕분이란 분석도 있다. 그보다는 맹자가 말한 임금보다 사직, 즉 대통령보다 국민의 안양(安養)을 우선했기 때문이라. “만인과 다투지 않고, 실무를 중시하라”는 풍도의 좌우명은 고건의 처세와 꼭 들어맞지 않은가.

비슷한 인물로 조선시대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을 들 만하다. 선조-광해-인조를 거치며 공직생활 64년 가운데 40년을 재상으로 봉직했다. 임진왜란은 이조판서로, 인조반정은 영의정으로, 정묘호란은 영종추부사로 극심한 혼란기를 관리했다. 그가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초가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던 청백리로도 유명하다.

목민심서의 다산 정약용도 시를 지어 “이 한 사람으로 사직의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달라졌고, 백성의 여유로움과 굶주림이 달라졌다”고 칭송했다. 바로 맹자가 말한 ‘임금보다 사직’이 아닌가. 임진왜란 때 “신(臣)에게 아직 배가 12척이 남아 있다”고 했던 충무공 이순신도 “이나마 수군이 유지된 것은 내가 아니라 상국(이원익)의 힘이다”고 공을 돌렸다.

강이 구불구불 흐르는 이유는 여기저기 널리 적시기 위함이다. 역사의 강도 그렇다. 그 강물에 부러진 나뭇가지와 헤진 나뭇잎들도 앞다퉈 떠내려간다. 기슭에서는 크고 작은 물거품이 서로 붙었다 떨어지며 눈치를 본다. 종종 굽이질 때면 거슬러 흐르는 듯 제자리 맴도는 듯 착시도 일으킨



다. 폭포로 떨어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다.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 흐르는 강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간혹 강물위에 동실 떠내려가는 나무 등걸은 자신이 강물을 이끄는 것으로 착각한다. 민중의 손에 들려 펄럭이는 깃발은 자신이 역사를 이끈다고 착각한다. 굽이 없는 강물이 없고, 고비 없는 역사는 없다. 부유물은 흐름의 가늠자일 뿐이며, 깃발은 응집된 민심의 표지일 뿐이다. 나폴레옹의 부침도, 오바마 등장도 그렇다. 하물며 지킬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보수와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 진보가 무슨 흐름의 추동력이겠나.

풍도는 최소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리더의 역할을 알았다. 집이 쓰러지는 것은 비바람 때문이 아니라 사전에 손보지 않은 게으른 주인 탓이다. 배가 좌초하는 것은 바다 때문이 아니라 선장의 무능과 선원의 무언(無言) 탓이다. 언제든 비바람은 몰아치고, 바다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가.

옛날이든 현대이든 정치는 메시지이다. 그 중에서도 인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다. 과연 오대십국의 왕들은 풍도를 계속 중용함으로써 백성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졌을까. 옥새를 두고 각축하는 그들만의 권력다툼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일상에 매진하라는 뜻일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자신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간직하면 일신이 평안하리.” 풍도가 지었다는 설시(舌詩)도 좀 헛갈린다. 관료주의자로서 출세의 비결을 읊은 것인가, 망나니 권력에 대한 경계인가.

봄날에 풍도를 꿈꾸는 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요란하다. 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권력은 밤하늘의 달과 같다. 때를 만나면 보름달로 뜨겠지만, 이내 이지러지고 스러진다고. 권위는 별과 같다. 먼 하늘에서 반짝일 뿐이지만, 역사의 밤에 방향을 제시한다고. 🌌